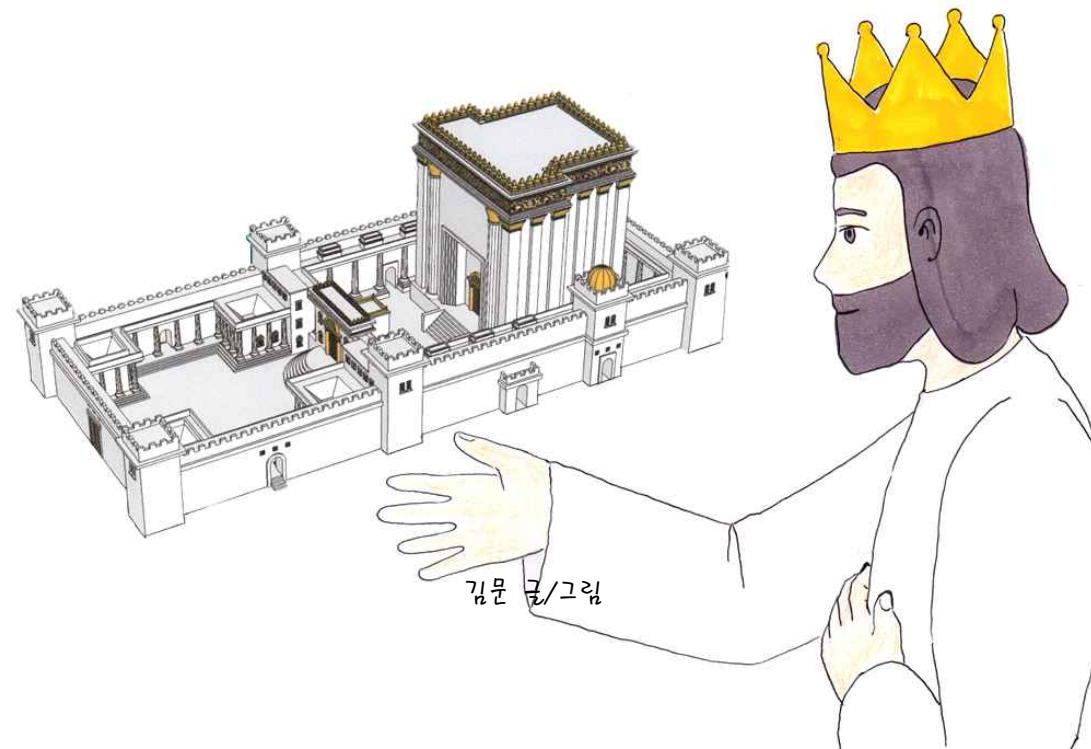


5

이스라엘의 실패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동화

♥ 성경 동화

1. 하나님의 창조
2. 인간의 타락
3. 구원의 시작
4. 하나님의 백성
5. 이스라엘의 실패
6. 진정한 이스라엘
7. 예수님의 구원
8. 오순절의 성령님
9. 예수님의 증인들
10. 완성될 하나님나라

♥ 교리 동화

21. 종교, 계시, 성경
22. 삼위일체 하나님
23.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24.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5. 예수님은 누구신가?
26. 예수님의 사역
27. 성령님은 누구신가?
28. 성령님의 구원 적용
29. 교회란 무엇인가?
30.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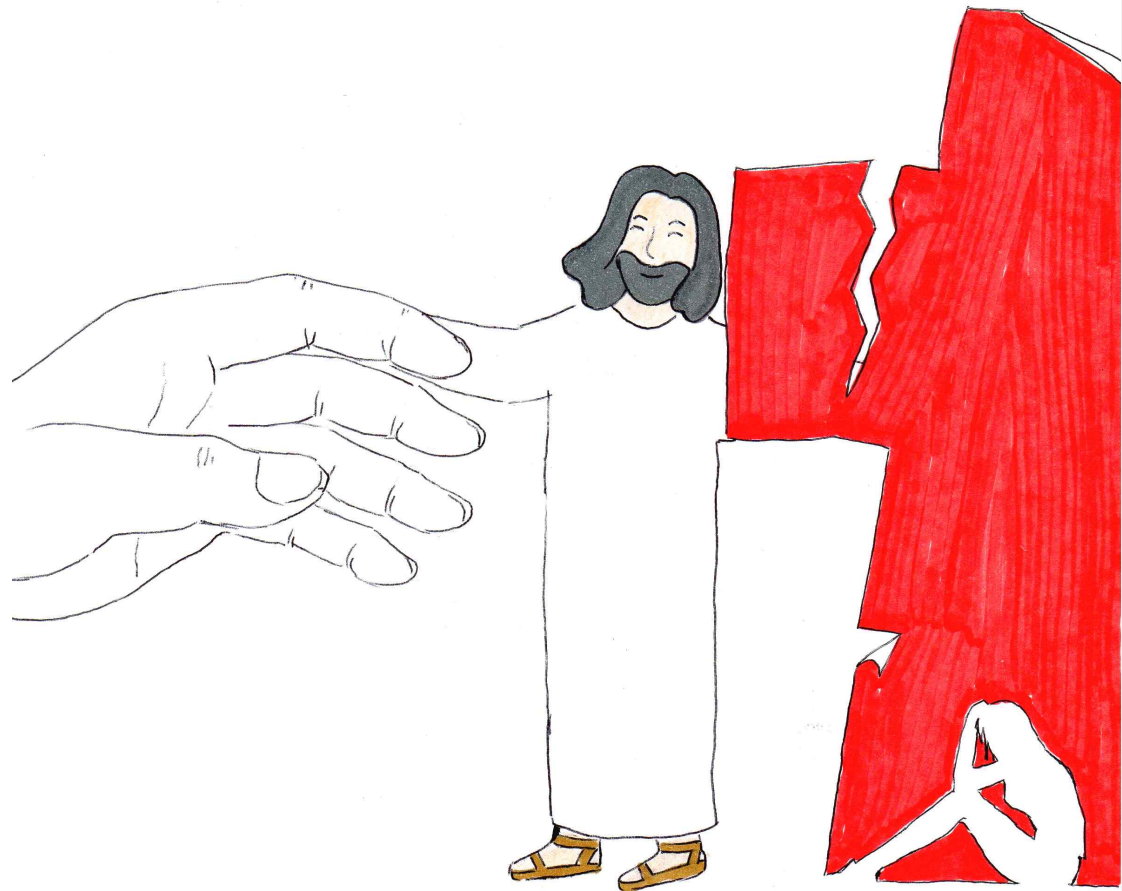
♥ 교회사 동화

11. 교부들의 유산
12. 이단들과의 싸움
13. 순교자들
14. 제국의 기독교
15. 교회 회의
16. 십자군 전쟁
17. 수도원 운동
18. 교회 개혁
19. 교단의 분열
20. 구학파와 신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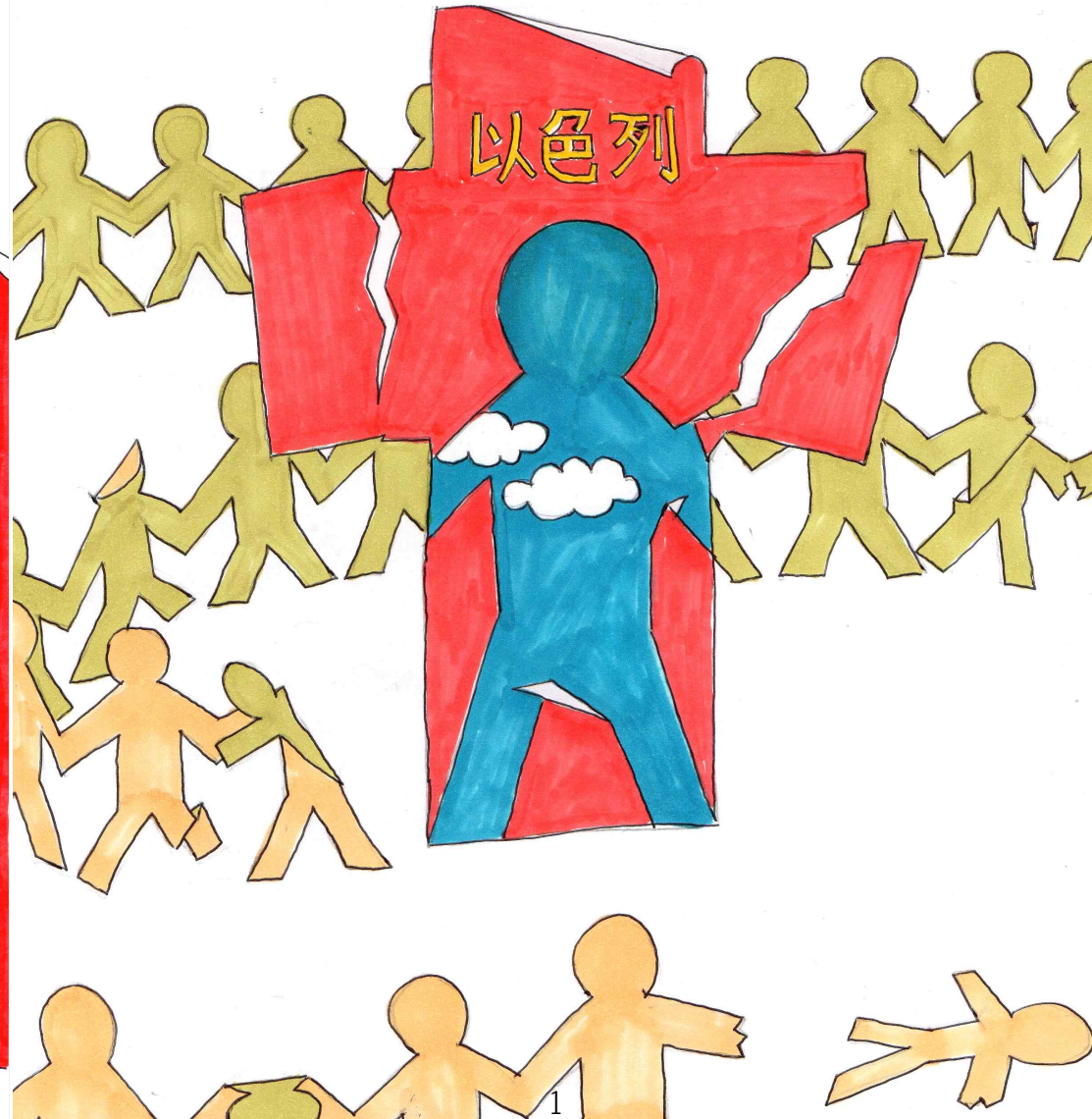
♥ 실천 동화

31. 성도의 윤리와 도덕
32. 목회와 교회정치
33.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34. 설교에 대하여
35. 세례와 성찬
36. 교회의 권징
37. 심방과 상담
38. 직업과 소명
39. 전도
40. 선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모델로서의 역할도 상실하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
모델이 아닌 진짜 구원자가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모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부족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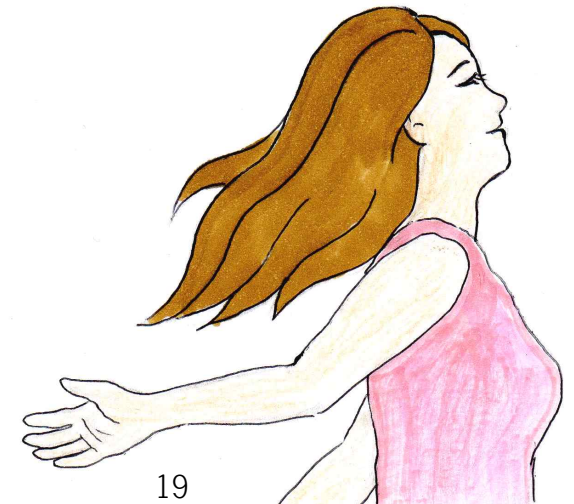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중심으로 어떤 무대가 펼쳐지는지
구약성경의 역사를 돌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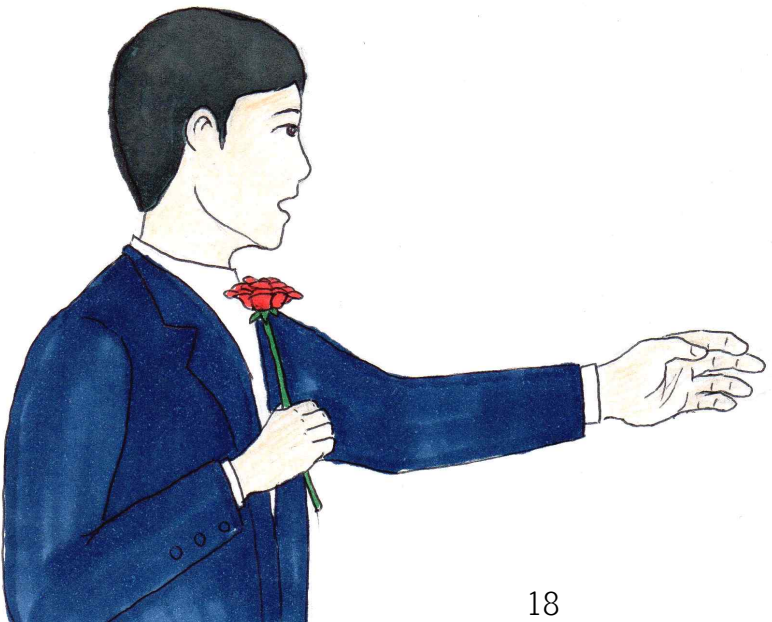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때,
항상 승승장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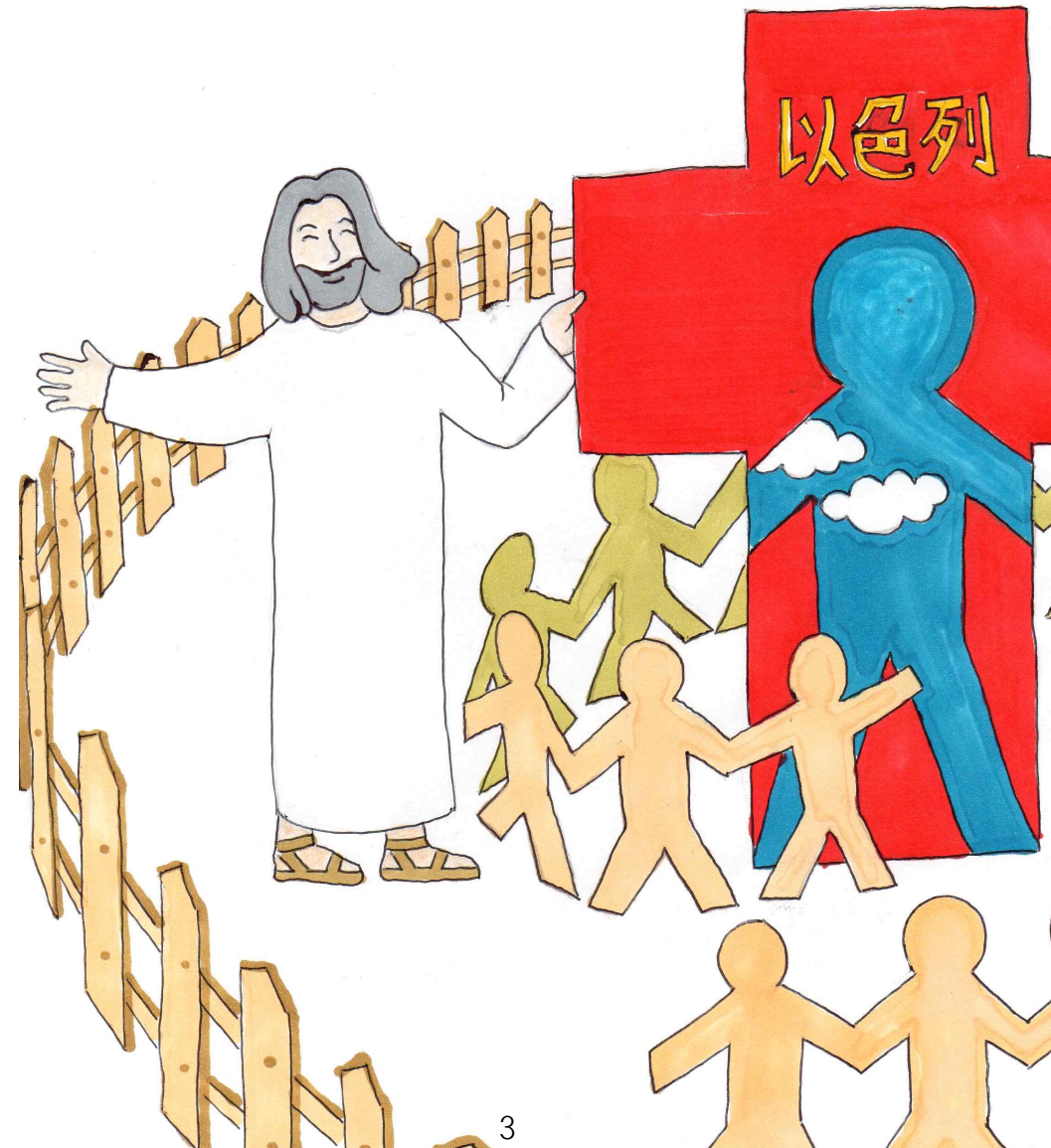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과의 혼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모델 역할을
계속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서의
 모델 역할을 상실하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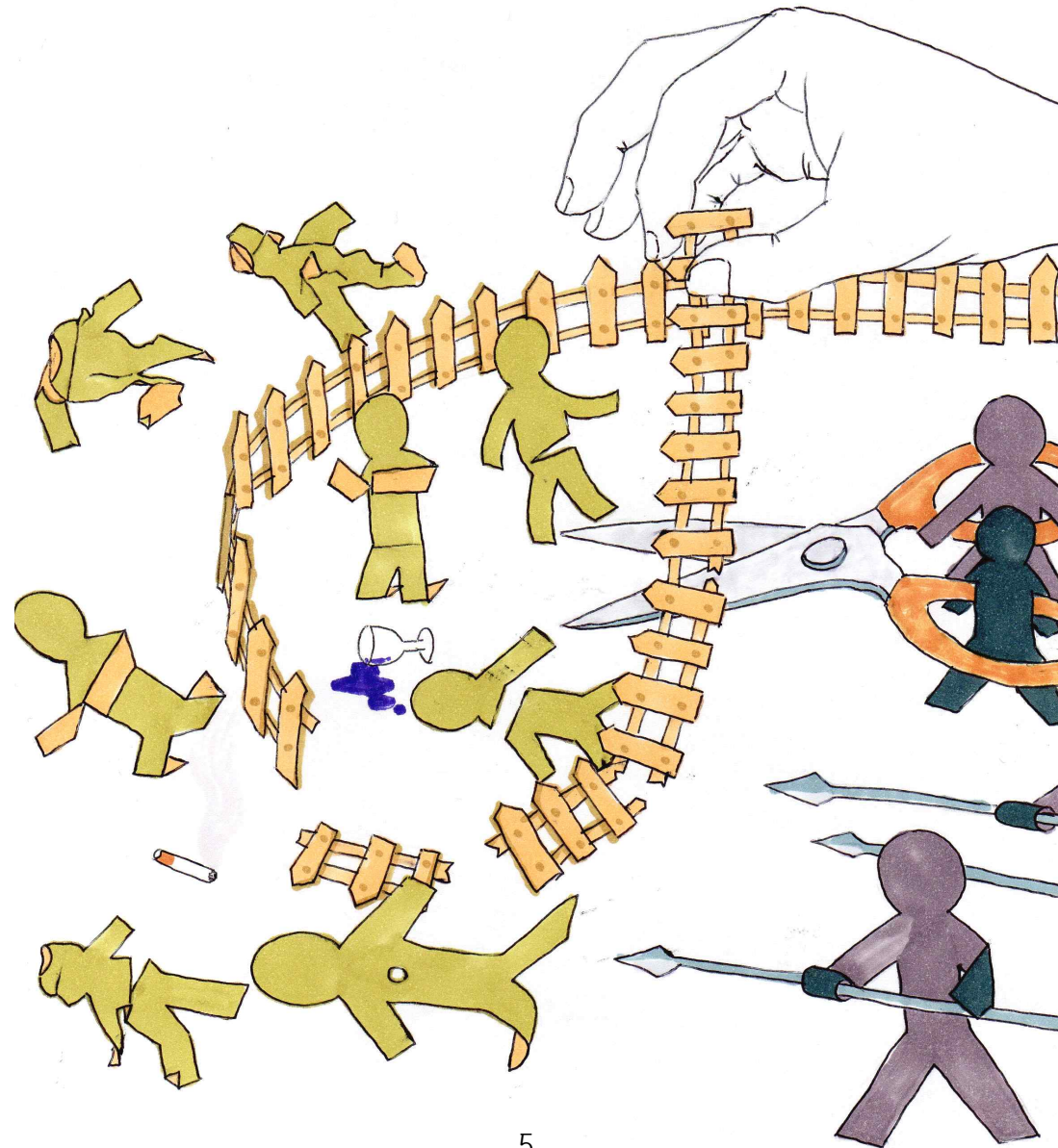
이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마치 남편의 품에서 사랑받는 아내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후부터는
 하나님나라의 성격은 평화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통치하시니
 당연히 전쟁보다는 평화의 이미지가 더 어울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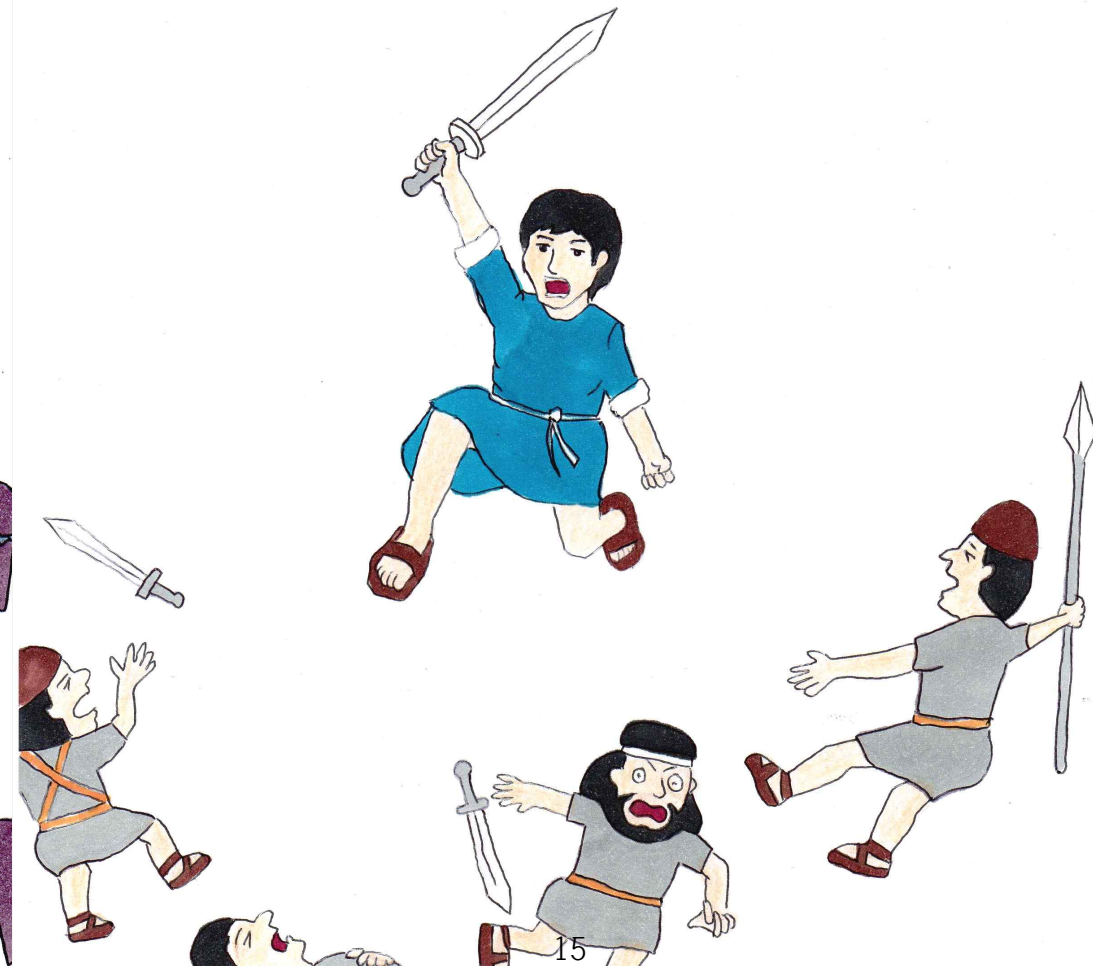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자,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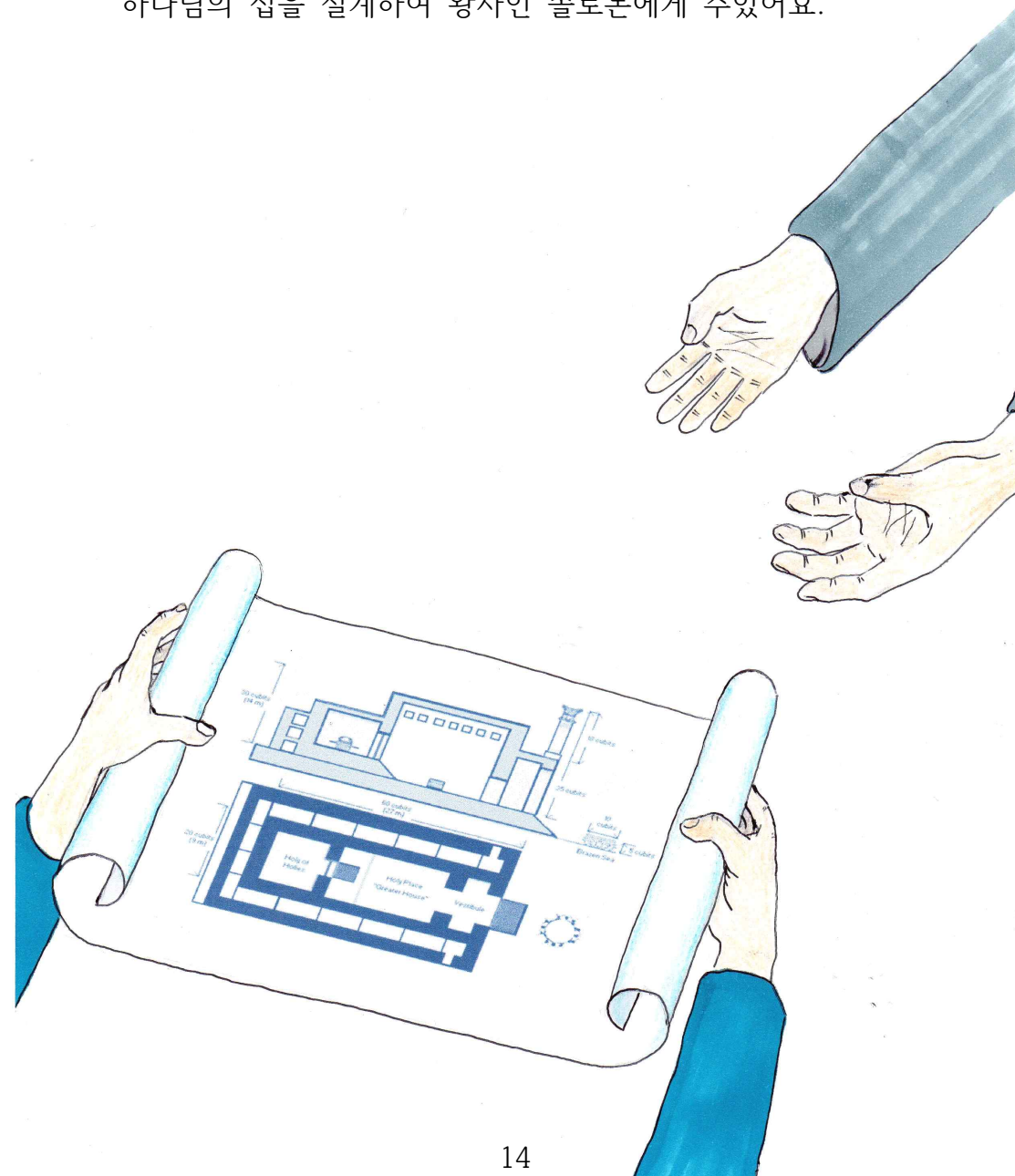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통해 강대한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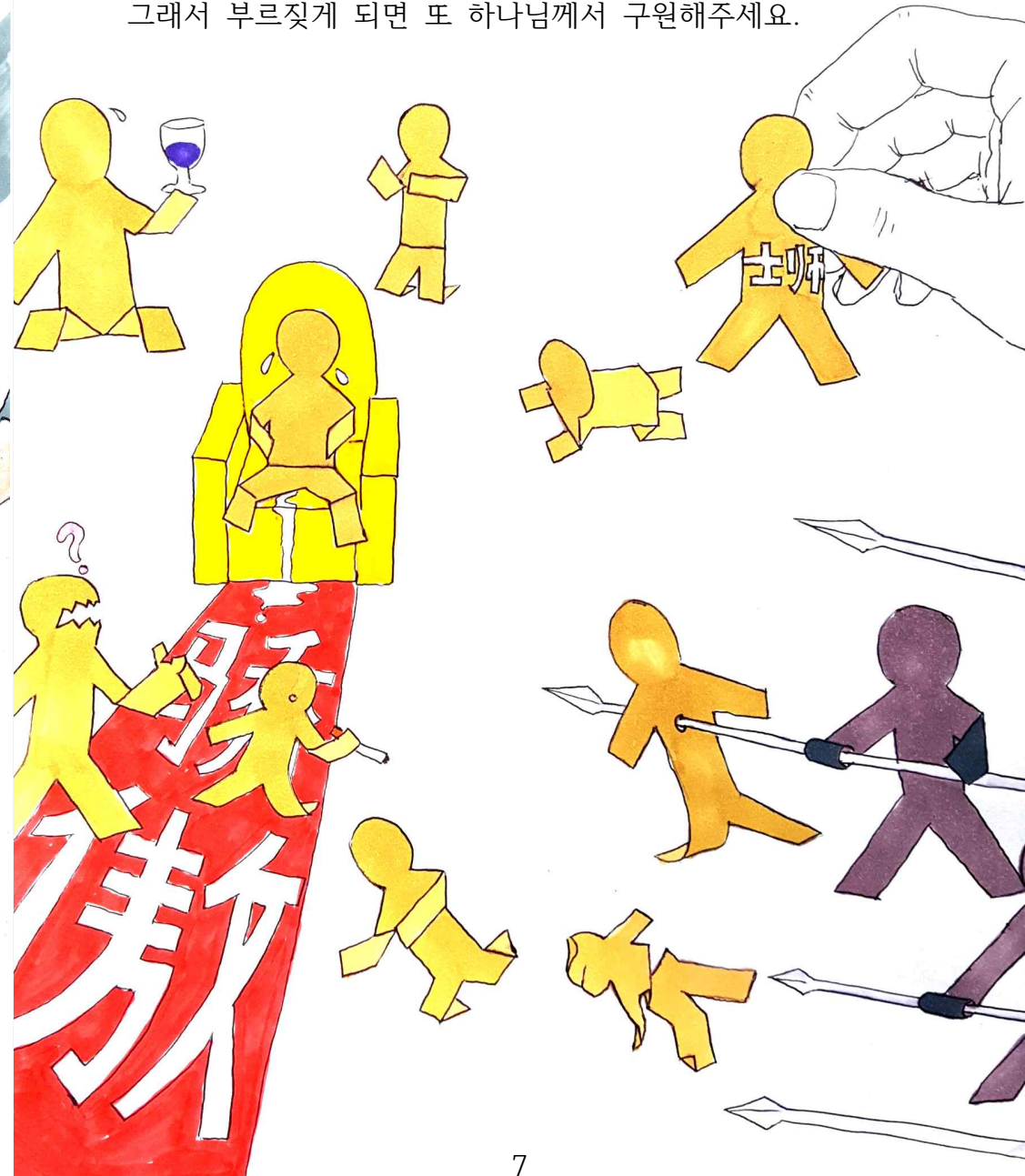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주변 민족들 간의 싸움을 모델로 하여
 하나님나라의 성격을 보여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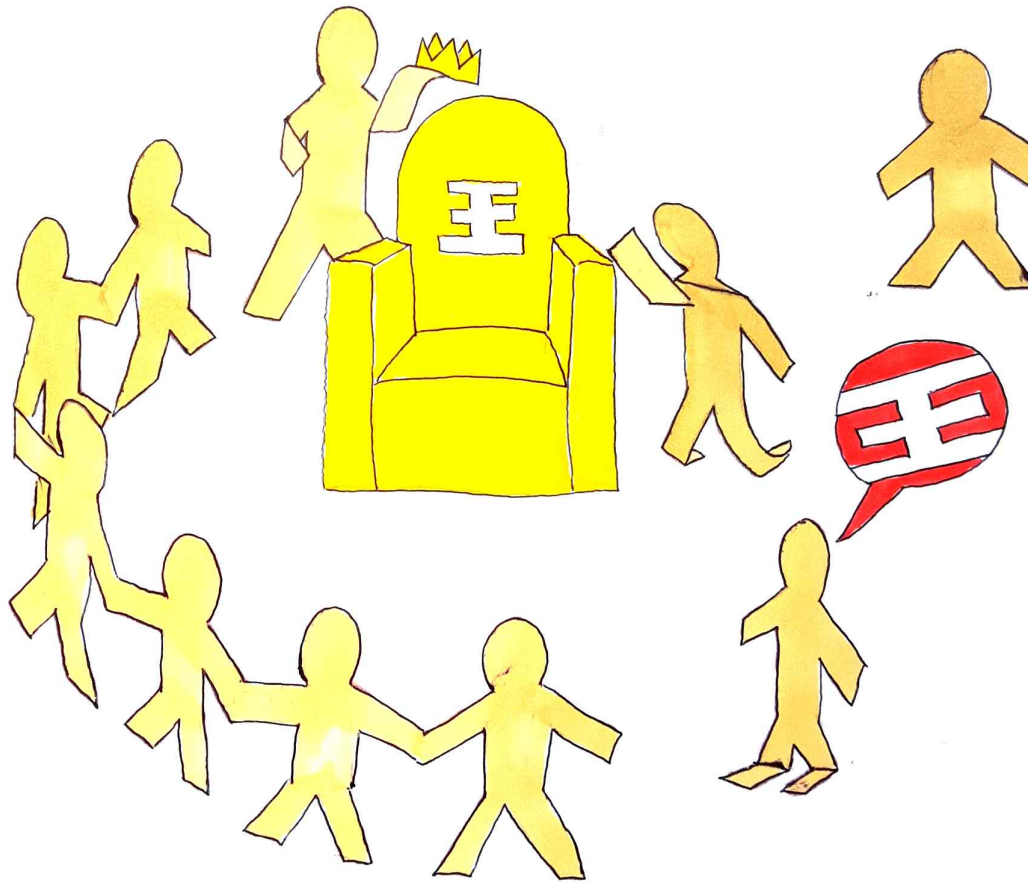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왕으로서 통치하시려면
하나님의 집이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집을 설계하여 왕자인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또 교만해져요.
그렇게 되면 또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부르짖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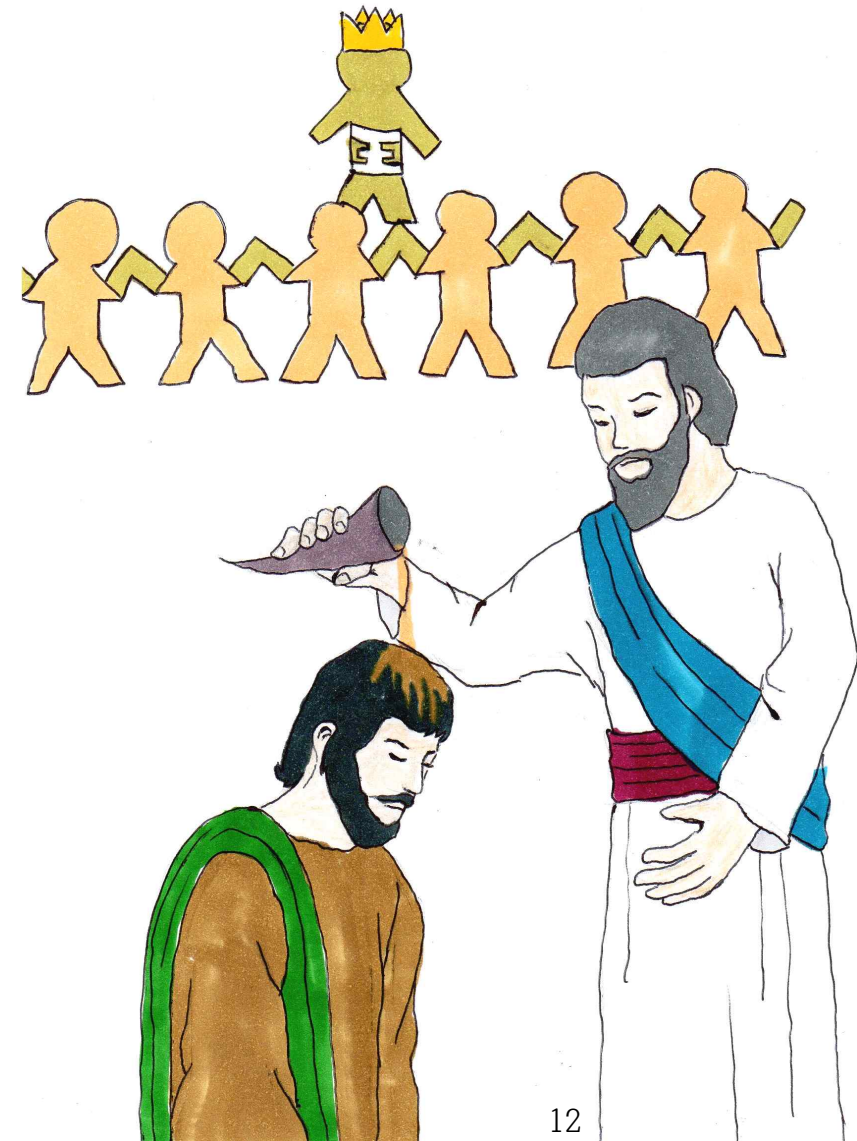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침략을 당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마음이 언짢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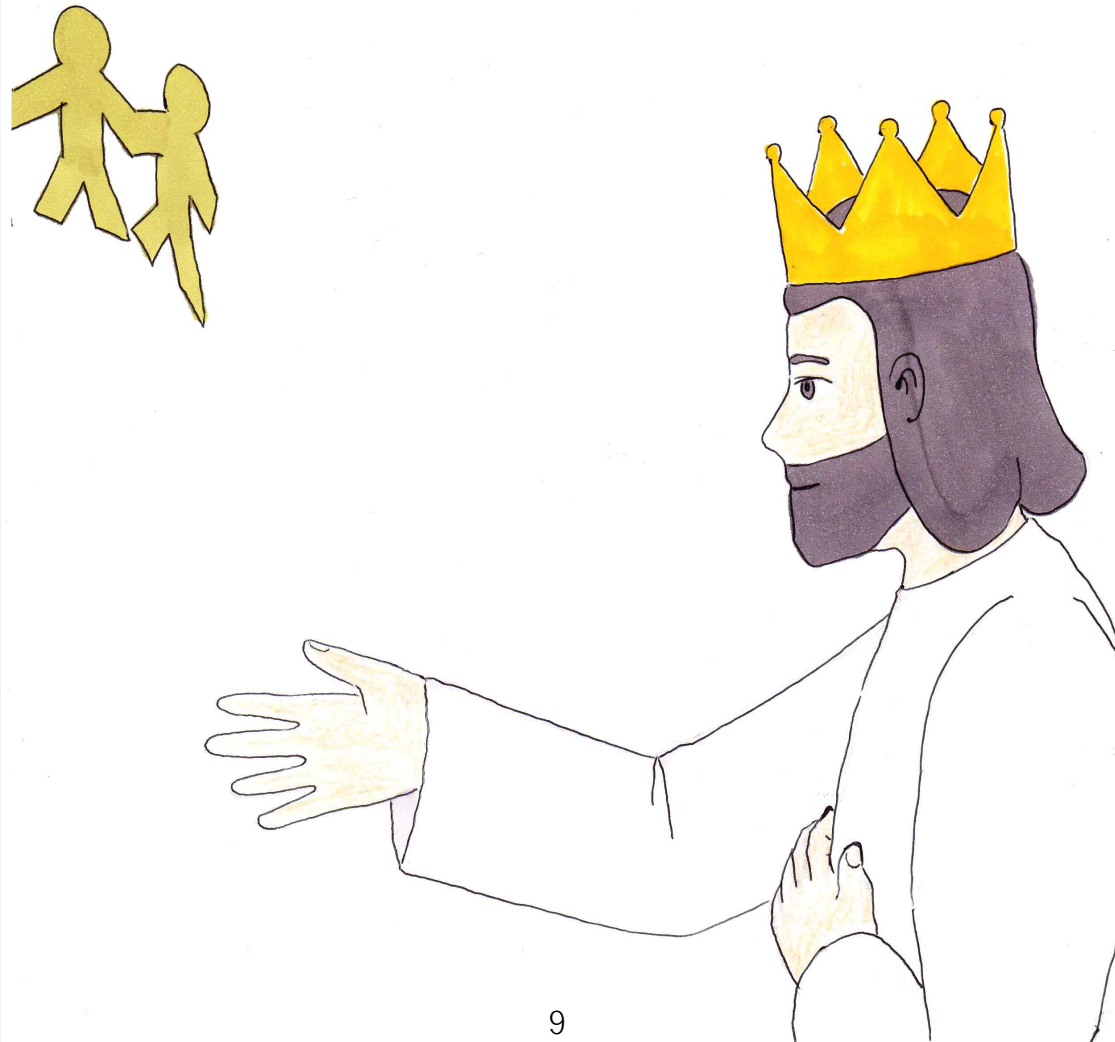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신이 원하시는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야말로 참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주는
 지표 역할을 잘 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대리 왕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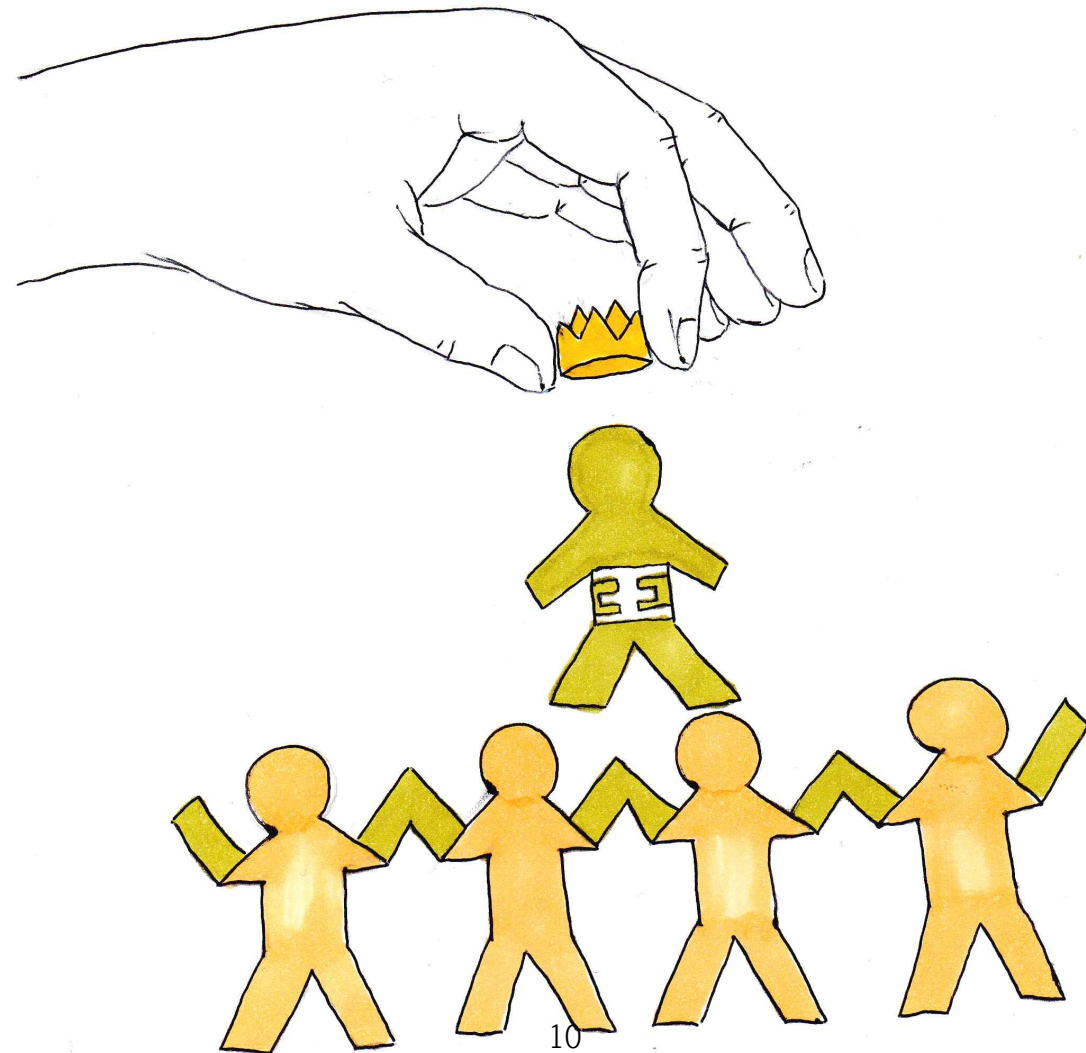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선택된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백성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백성이 생각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달랐기 때문이지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져서
 그들이 침략을 당했던 것인데,
 왕이 없어서 그랬다니 참 한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백성이 인식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인간 왕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인간 왕은 백성을 참 왕이신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며,
참 왕을 가리키는 지표 역할을 하는 대리 왕이어야 해요.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